

스테로이드 저항성 혹은 의존성 신증후군 환자에서 cyclosporine의 효과.

순천향대학 부설 현암 신장 연구소

전 진석, 김 찬규, 황보권, 박민선, 황승덕, 이희발.

스테로이드 저항성 혹은 의존성 신증후군 환자에서 cyclosporine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증후군이 있으며 원인 신질환이 미세병변 증후군 (MCNS)와 초점성 경화성 신증 (FSGS)인 환자 중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스테로이드 의존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검사를 시행하였다. 13명의 환자가 cyclosporine (1군; Neoplanta, 한미약품)을, 6명의 환자가 cyclophosphamide (2군)를 사용하였다. 1군 13명중 9명, 2군 6명중 5명은 FSGS이었다. 1군 10명, 2군 4명이 남자이였으며, 평균연령은 1군 35세 (17-46세), 2군 26.3 세 (17-39세)이었다. cyclosporine 혹은 cyclophosphamide 사용 시작시 혈청 creatinine (1.01 ± 0.37 vs 1.13 ± 0.04 mg/dl), 알부민 (2.69 ± 1.15 vs 2.62 ± 1.14 g/dl), 콜레스테롤 (406.9 ± 190.80 vs 333.47 ± 80.54 mg/dl) 값은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. 20주까지 추적 검사에서 1군 13명중 3명 (23.1%)에서 투약 후 평균 10.7 주에 완전 관해, 7명 (53.8 %)에서 평균 9.7 주후에 부분 관해를 경험하였고, 나머지 3명에서는 투약 16주 후까지 치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. 2군 6명 중 2명 (33.3 %)은 12주 후에 완전관해를, 1명 (16.7 %)에서는 4주 후에 부분관해를 경험하였고, 나머지 3명 중 2명은 16주 후까지, 1명은 8 주 후까지 치료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. 투약 전과 후 4주째에 검사한 환자 14명 에서 24시간 뇨 알부민을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한 값 (alb/cr)은 1군 (8명, 6.45 ± 4.57 vs 3.33 ± 2.69)과 2군 (6명, 6.86 ± 5.72 vs 3.19 ± 3.71)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8 주후에 검사한 14명에서는 1군 (10명)에서는 초기값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 하였으나 (7.92 ± 6.73 vs 3.89 ± 5.94 , $p < 0.05$), 2군 (4명, 6.78 ± 6.39 vs 2.89 ± 1.8)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cyclosporine 사용 시 체중 kg 당 5mg을 사용한 1명에서 만연 흉조가 있었으나 용량을 체중 kg 당 2.5 mg으로 감소시킨 후 소실되었으며, 초기부터 1일 체중 kg 당 2.5-3 mg을 사용한 1군의 나머지 환자들과 2군에서는 특이할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. 이상의 결과로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환자에서 cyclosporine 사용 군과 cyclophosphamide 사용 군 각각에서 61.5%와 50 %에서 완전 혹은 부분 관해가 관찰 되었고,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. 따라서 더 많은 수의 환자에서 cyclosporine의 효과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스테로이드 의존형 신증후군 환아에서의 세포독성약제(cyclophosphamide, chlorambucil), cyclosporine 및 levamisole의 치료효과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

박창로, 임현석, 노은석, 고철우, 구자훈

목적 : 스테로이드 의존형 신증후군 환아의 치료에 cyclophosphamide, chlorambucil 및 최근에는 cyclosporine, levamisole등이 사용되고 있다. 본 조사는 스테로이드 의존형 환아를 대상으로 이들 약제의 치료효과를 비교관찰하고자 시도되었다.

방법 : 대상환아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조직검사상 미세병변 신증후군으로 진단된 스테로이드 의존형 환아 88례로 하였으며 cyclophosphamide와 chlorambucil은 8주 혹은 12주 사용하였고 cyclosporine과 levamisole은 6-12개월 투여하였다.

성적 : 세포독성약제에 의한 완해 지속율은 1년간 완해율이 cyclophosphamide 12주 치료가 53%로서 8주 치료 또는 chlorambucil의 12주 혹은 8주 치료보다 높았다. 그러나 2년간의 완해율은 cyclophosphamide 12주 치료가 19%로서 chlorambucil 12주 치료의 17%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며, 5년간 완해율은 cyclophosphamide 12주 치료가 12%, chlorambucil 12주 치료가 8%로서 모두 8주 치료보다 다소 높은 완해지속율을 보였다. Cyclosporine 6-12개월 치료에 의한 완해 지속율은 총 44예중 8례에서는 완해 유지효과가 없었으며, 28례(64%)에서는 재발이 없었고, 8례(18%)에서는 사용기간중 재발하였으나 빈도가 낮았다. Levamisole 6-12개월 치료에 의한 완해 지속율은 총 16례중에서 3례에서는 완해 유지효과가 없었으며, 8례(50%)에서는 재발이 없었고, 5례(31%)에서는 사용기간중 재발하였으나 빈도가 낮았으며 또한 steroid-sparing 효과가 관찰되었다. Cyclosporine 또는 levamisole 치료로서 완해 유지를 나타내는 환아에서 이들 약제의 단독사용으로 완해가 지속되는율은 2, 4, 6 및 8개월에 cyclosporine의 경우는 83%, 83%, 57% 및 43%였고, levamisole의 경우는 85%, 85%, 67% 및 44%로서 두 약제간의 완해 지속율의 차이는 없었다.

결론 : 스테로이드 의존형 신증후군 환아의 치료에는 cyclophosphamide나 chlorambucil 12주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cyclosporine과 levamisole의 장기사용은 큰 부작용없이 지속적인 완해 또는 steroid-sparing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환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